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2호 [루게 제24970호] 주제104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서홍찬동지, 리제일동지, 전일춘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공장직공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수산물가공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특별히 관심하시

였다고 하시면서 김생산과 김가공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장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맞추고 영양가 높은 김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데 대한 교시를 여러차례나 하시였다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께서 직접 받은 교시만 해도 정말 많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김가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가공품의 가치수와 질, 가공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에서 우리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라고 하시면서 생산성이 높은 김품종들을 바로 선정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양식의 과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다가 양식은 많은 바다나물과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리에 맞는 수산물생산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오염되지 않은 우리 나라 바다에서 양식만 잘해도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김을 비롯한 바다나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앞장에서 그들을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건강식품인 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구운참김, 가공김 등 가공품들의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김은 아이들의 성장발육에도 좋고 입맛을 돋구는데도 그저그만이라고,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김을 길러왔다고, 우리 나라 참김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

빨리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 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은것만큼 공장에서는 김가공품의 가치수와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 현재 1차가공품인 관김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구워내는 방법으로 몇 개의 가공품만을 생산하고있는데 김가루, 각종 조미김, 김줄임과 같은 여러가지 특색있는 가공품들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여러가지 김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

기 위해서는 우리 식의 새로운 김가공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더 꾸려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김가공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김가공에서의 손로동을 줄이고 기계화비율을 높이며 제품포장을 잘하기 위한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의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자면 련관부문 바다가양식사업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김양식장면적을 확장하고 정보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부문과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쫓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펄펄 휘날리는 청년돌격대기발은 위대한 업적을 노래한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를 찾아서

청년강국, 위대한 부름을 떠올린 비범한 령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나날이 진군속도를 높여나가는 우리 조국의 전열에는 언제나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들이 서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와 조국의 만년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전구들, 최첨단돌격대원이 벌어지는 전투장에도 청년이라는 고귀한 이름이 빛나고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그토록 기세차고 박력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인민군대가 강하며 세상에 무서운것이 없는것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대로 키우고 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며 그들의 위훈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되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입니다.》

청년강국! 백두대지에 쩌렁쩌렁 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고 지금도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날은 지난 4월 19일이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를 찾으시였다.

발전소일꾼의 안내를 받으시며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커다란 만족속에 환히 웃으시려고 청년건설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씩에 앉히고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들의 가슴에 달아주고싶은 심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1호발전기앞에서 발전기의 효률도 알아보고서 점검보수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호발전기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을 귀기울이기도 하고 발전소의 한 일꾼과 대정히 이야기도 나누시던 그이께서는 발전소건물밖으로 나가시였다.

동행한 일꾼들도 힘있게 걸음을 내딛는것이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문밖에서는 발전기의 동음도 들리지 않아 주변은 고요하였다.

밖으로 먼저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발전소옆에 자리잡은 변전소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앞서 걸으시던 그이께서는 뒤따르는 일꾼들에게로 돌아오시였다.

청년강국! 격동적으로 울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은 봄우레처럼 산골의 고개를 깨뜨려 퍼져나갔다. 참으로 력사적인 순간이었다.

그 순간 청년돌격대원들은 온 세상을 통해 받아안는것만 같았고 가슴속에서는 순식간에 크나큰 감격의 파도가 일어났다.

력사의 이 시각에 자기들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하는 일꾼들에게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사상강국, 군사강국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데 대하여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금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로 오면서 자신께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여있는것들을 보며 거기에서 힘을 얻은데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하시고 기특하고 대단한 우리 청년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심정으로 터놓으시였다.

청년강국, 평가하면 이보다 더 큰 평가가 또 어디에 있는지 영예중에 이 말보다 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궁지까지 찢어 부풀게 하는 영예는 과연 무엇이겠나.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강국이라도 많고 앞날이 밝고 번영이 넘쳐나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청년문제가

궁지없이 해결된 나라는 없다.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사랑받고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될지는 우리의 청년들을 두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를 새로운 시대로 강국의 정표를 정립하시며 올라섰음을 말해주고있었다. 이날은 청년강국, 이 위대한 부름은 감정은사이에 혁명발전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또다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음을 말해주고있었다. 이날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창창한 미래가 더 더욱 굳건히 담보된 뜻깊은 날이었다. 그것은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안아올릴수 있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매일, 매 시각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에서 일하는 청년돌격대원들은 이토록 위대한 부름이 자기들의 일터에서 시대의 하늘가에 떠올랐다는것을 놀라기만 하였다.

청년들이 내놓은 일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랑이나 실적, 심은 나무의 수자로 계산하지 않으시였음을 깨달으며 청년돌격대원들은 그이의 현지지도로정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많은 시간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에 바치시였다. 멀고 험한 곳에서 청춘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을 못보고싶어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마음까지 안고있던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려고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더없이 미더운 모습으로 자리잡은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애국의 마음을 뜨겁게 깃들여있는것들을 보며 거기에서 힘을 얻은데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하시고 기특하고 대단한 우리 청년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심정으로 터놓으시였다.

청년강국, 평가하면 이보다 더 큰 평가가 또 어디에 있는지 영예중에 이 말보다 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궁지까지 찢어 부풀게 하는 영예는 과연 무엇이겠나.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강국이라도 많고 앞날이 밝고 번영이 넘쳐나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청년문제가

나가에도 맑은것이 멎었다.

백두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반영된 직관관을 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통탄히 무장한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을 헤아려주시며 멎번이고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영웅적위훈으로 당의 뜻을 받들어 온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성과전지자료들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언젠건설장소를 에둘러 산길을 달리는 차안에서도 감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청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장수물들이 더없이 소중한것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은 진정 뜨거우시였다. 차창밖의 모든것을 하나하나 훑음과 주의길에 바라보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언뜻 스치듯만 한 크지 않은 양묘장앞에서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려만밭산림조성전망도와 양묘장조성정황을 보여주는 직관관 그리고 식물들의 나무모들, 찬바람이 새어들레라 정성을 다한 비닐박막집이며 청년돌격대원의 깨끗한 마음이 비친것같은 양묘장...

눈앞에 펼쳐진것은 양묘장만이 아니라...

서수주의 흐름을 가르막으며 거연히 서있는 발전소건물의 모습도 가까이 바라보이고있었다. 언뜻언뜻 산골짜기에 조국의 만년재부가 될 발전소건물이 초아오르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백두대지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조선청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정황을 또다시 창조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열혈의 피와 땀으로 위훈의 자욱자욱을 새긴 조선청년들의 자랑찬 투쟁정황은 백두산기슭의 옛 일꾼들에서 얼마나 낫듯이 이어지고있는것인가.

백두청춘들이 우리 당력사에 새겨

는 또 하나의 뚜렷한 자욱자욱 발전소건물의 웅장한 자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시며 양묘장을 돌아보시였다. 엄숙한 북방의 기후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공

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치열한 투쟁을 벌리는 속에 서도 산림조성전망계획을 세워놓고 양묘장을 꾸려놓았으며 백두대지를 가꾸어 발전소건설장소주변에 특색있는 산림을 조성한 기특한 청년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금치 못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께서 헤아리신것이 어찌 청년들의 애국심뿐이었나. 여기에 일떠서는 발전소도, 크지 않은 양묘장에서도 시작되어 주변의 산들을 뒤덮은 무성한 숲도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이기에 귀중하시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게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안겨있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백두대지를 가꾸며 백두의 넋과 정신을 지닌 오늘의 빨찌산사수들로 발전소의 연제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있는 청년들이였다.

하기에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그들과 함께 땅을 울리며 대자연과의 싸움을 벌리고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백두산대국의 최후순대를 향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리라 마음다지신것이라.

청년강국, 평범한 날에 태어난 그 부름은 우리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의 위대한 결실이었다.

저 멀리 백두의 하늘가에 배경으로 거연히 서서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오늘의 빨찌산김대장의 모습이였다.

그이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새로운 시대에 우리들의 하늘가에 떠올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욱자욱을 더듬을수록 일꾼들에게는 터지지 않고서는 건질수 없는 배움이 있었다. 절세영웅을 높이 모시기에 조선의 청년들이 우리들의 청춘이 아물다물하며 귀한 민족의 청년세대가 빛나는것이리라.

위대한 백두정령을 높이 모시어 청년중시의 위대한 사상이 빛나는 내 조국의 미래는 더욱더 휘황찬란할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볼도가니마냥 들끓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발전소완공의 그날 더욱더 몰라보게 성장한 백두청춘의 모습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리고싶은 열망은.

지난 4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직관관앞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혁명의 계승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스스로 총화하기 위해 선군청춘대학 성적증을 직관관앞에 그려놓고 마음속으로 매일, 매 시각 그앞에 서곤 하였을 청년돌격대원들.

그들의 기특한 마음을 헤아리시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와서 일하다가 교화하는 청년들이 선군청춘대학을 졸업하고 간다고 말한다는데 직관관에 그려놓은 선군청춘대학 성적증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만도 하다고 긍정해주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교양되고 단련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시절을 혁명학교과정으로 되게 하여 모든 청년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선별들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드는 혁명적기풍과 고상한 미풍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관관에 그려놓은 선군청춘대학 성적증을 보면 발전소건설과정에 청년들이 어떻게 정신력의 강자들로, 위훈의 창조자들로 자라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거기에는 수평결사용위, 김정일애국주의, 자력갱생과 결사판적,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 혁명적관공주의로 모두들이 설정되어있다. 이것만 보아도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속에는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도 있고 협동농장의 농장원으로 일하던 청년도 있었다. 출신도 경력도 서로 다른 그들이 여기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온 당시에는 모습도 성격도 각이하였지만 모두가 청년돌격대생활과정을 통해 그 성격중에 새기는 성격은 오늘 하나와 같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청년전위들로 더욱 믿음직하게 성장하고있는것이다.

가장 엄격한 환경속에서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년을 뽕고나가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기적과 위훈창조의 능수, 젊은 시절에 벌써 후손만대를 생각하며 푸른 숲을 가꾸는 애국자,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기보다 동지를 먼저 생각하여 의지하다가 교화하는 청년들이 선군청춘대학을 졸업하고 간다고 말한다는데 직관관에 그려놓은 선군청춘대학 성적증을 보면 그런 말을 할만도 하다고 긍정해주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교양되고 단련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시절을 혁명학교과정으로 되게 하여 모든 청년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선별들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드는 혁명적기풍과 고상한 미풍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관관에 그려놓은 선군청춘대학 성적증을 보면 발전소건설과정에 청년들이 어떻게 정신력의 강자들로, 위훈의 창조자들로 자라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거기에는 수평결사용위, 김정일애국주의, 자력갱생과 결사판적,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 혁명적관공주의로 모두들이 설정되어있다. 이것만 보아도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청년들을 위훈의 창조자로 키우시던 나날에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어느해 12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에게 참으로 고귀한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모진 추위와 눈보라속에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결사전을 벌리고있을 청년돌격대원들을 생각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에는 아버지의 정이 넘쳐흐르고있었다. 백두청춘들에게 대한 그이의 각별한 정에 일꾼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잠시 저 멀리 백두산쪽을 바라보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정말 훌륭하다고, 자신께서는 최고사령관

사랑의 특별명령

주제 95(2006)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외국 방문의 길에 계시였다. 산과 들을 휩쓰는 세찬 눈보라가 그이께서 타신 열차의 차창에 불어치고있었다.

의 별동대인 우리 청년들을 믿는다고, 청년들을 믿기에 그들에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맡기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훌륭하게 건설하고야말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강조하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전국이 달려붙어 지원하도록 은전없이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이 고귀한 칭호에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차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일꾼들에게 해서인 방편의 길에 계시였다. 산과 들을 휩쓰는 세찬 눈보라가 그이께서 타신 열차의 차창에 불어치고있었다.

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하여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고있을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이 어려오시는듯 그들에게 새 솜옷을 보내주자고, 때문에 길이 어렵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훌륭하게 건설하고야말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강조하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전국이 달려붙어 지원하도록 은전없이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이 고귀한 칭호에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차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일꾼들에게 해서인 방편의 길에 계시였다. 산과 들을 휩쓰는 세찬 눈보라가 그이께서 타신 열차의 차창에 불어치고있었다.

참으로 눈물맺어는 받아들일수 없는 뜨거웠던 그이의 자애로운 음성에 어려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특별명령이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에 의하여 며칠후 솜옷을 받은 비행기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을 향해 하늘길로 날았다.

영광의 기념사진

높이 펼쳐져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고 힘을 주시고 고무어린 격려도 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멀고 험한 곳에 달려나와 애국충정의 수레발을 울리고있는 우리 청년건설자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에는 그이들 모신 차가 떠나간 후에도 산발발에 깔았기 때문이라고 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자기들의 보폭을 따라세우기 위해 애쓰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녹고있는지 구애어 묻지 않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총성과 보람의 마음안고

청년돌격대원들이 오늘도 돌격대의 연적이 새겨져있는 곳을 찾고 있다.

기쁨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마음 달려오는 곳, 이곳에 서면 비록 길다고 불수는 없으나 걸음걸음에 영감이 넘치고

못 잊을 추억을 주는 돌격대의 지난날을 더듬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찾아오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찾아오시어 풍토가 지른 북방의 불려난 조건에서도 시대를 빛내이는 거창한 창조물들을 일 때 세우는

백두청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위훈창조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던 그날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고 된다.

그러면 새 힘이 솟는다. 폭풍처럼 달려갈 승리의 래일이 눈앞에

다가온다. 백두청춘들은 이렇게 사상정신적 향상을 받아안는다. 그러면 성장의 키는 불려나게 자라고 언젠는 쑥쑥 솟는다.

본사기자



온실남새연구와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10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일꾼들, 과학자,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소장 조남석의 보고에 이어 부소장 식원봉, 실장 심정희, 장장 리성음이 보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연구소를 찾으신것에 대하여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연구사업전경과 남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이 과학연구사업과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연구소가 연구과생산이 결합된 자랑할만한 한 기지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남새생산문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연구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연구소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로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출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취를 대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이 온실남새생산에 높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갖가지 온실남새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생동공화적인 방법으로 맛있고 영양가높은 다수확물종, 우량품

종의 온실남새종자들을 새로 육종해내는 사업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남새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비상한 각각과 열의를 안고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것으로써 정보당 남새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온실남새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다른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유복한 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온실남새생산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청춘들의 가슴에서는 무엇이 끓고있는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평안북도려단의 전투기투장을 펼쳐보면 이런 글이 보인다.

《굴진속도는 장군님게로 달리는 우리 마음의 속도.》

이것은 언젠인가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물결같은 땀을 흘리며 끝내게 새겨놓은 글이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갠이 물속에 잠겼을 때 잠시의 주저도 없이 때를 무어 걸음을 계속하면서 물투기전투를 벌였다. 72시간동안 계속된 물투기전투 끝에 밤이 불어나 칼로 제지 않고서는 장황을 두르지 못할수가 있었다고 한다. 돌격대원들의 결사적인 투쟁모습을 깊은 감동속에 그려보는데 려단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었다.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청년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의 내용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치의 양보와 드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의 소원, 그것은 인민의 행복이었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를 생각할 때면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예제인 백두산지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를 찾아오시였다. 동행한 일꾼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누르지 못하며 위대한 장군님께 고향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실것을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이 울리는 절절한 청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를 이듬도록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우리 인민들이 잘살게 될 때에 다시 와서 마음껏 웃고 싶고 휴식도 하고 싶다고 교시하시였다.

얼마만에 찾으신 고향집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모신 천군만민의 감격인양 천고 밀림은 파도처럼 설레었건만 그이께서는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생가하며 떠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질수록 그이께서 맡기신 임무를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정과 열을 강하게 쏟아부으시는 우리 원수님, 오늘은 《굴진속도는 원수님게로 달리는 우리 마음의 속도》라는 말이

알고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꾼들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 가서였으면 한다고 거듭 간청하였건만 고향집에는 다음번에 가보자고 하시며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질수록 그이께서 맡기신 임무를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정과 열을 강하게 쏟아부으시는 우리 원수님, 오늘은 《굴진속도는 원수님게로 달리는 우리 마음의 속도》라는 말이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의 목소리로 되었다. ...

려단말의 말은 여기서 끝났고 우리들 사이에 더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가 날마다 창조되는 영웅적위훈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자기들의 보폭을 따라세우기 위해 애쓰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녹고있는지 구애어 묻지 않았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황해남도려단에서

온 사회에 차넘치는 고상하고 건전한 사회주의도덕기풍

혁명적이며 광만적인 생활속에 인격수양이 있다

지난 4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를 찾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청년들격대원들속에서 발휘되는 애국적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어린 평가를 받아안은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원들, 그들은 귀중한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인생관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청년강국의 선군청년문화를 창조해 가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갖 부정의와 탐욕으로 인권을 타락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이 감히 우리 청년들까지 변질시키려고 피눈물이 되어 날뛰고있는 때에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를 담은 선군청년문화의 참모습을 반박에 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청년중심정치위대한 승리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압도하는 혁명적인 사상문화의 빛나는 쾌승입니다.》

10여년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힘찬 백담군의 천수방으로 달려온 청년들격대원들은 처음부터 그야말로 악조건에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 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사남에 붙어있는 북방의 찬바람과 눈보라 불같은 열정과 자신만만한 배심으로 만연한 열정을 쌓고 물결을 뚫어나가는 청년들격대원들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낮에 밤을 이어 전투장마타에서는 혁명가요가 힘차게 울려 퍼졌고 건설의 동음은 그치지 않았다. 평야 30~4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맹추위와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청년들격대원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백두의 기상안고 역적세력 발전소건설전투를 벌리려는 청년들격대원들의 사상정신적품도와 투쟁기풍은 썩어빠진 부르주아인생관에 물든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은 도저히 흉내낼수도 상상할수도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당과 수령의 부름이리만큼 물결을 가리지 않고 신안강이 펼쳐지거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청춘을 바치는것을 제일가는 것으로, 삶의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인격의 높이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이 조국과 인민은 물론 부모형제도 모르는 인간추물로 전락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 청년들과는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인가.

고상한 인격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이처럼 당과 조국, 사회와 집단을 위해 참담케 이바지하려는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분발하고 분투하는 파열력만사람의 경건과 신망을 지어내는 인격의 높이에 도달하게 되는것이다.

안일과 편안속에서는 결코 고상한 인격을 쌓을수 없다. 험한 가시덤불과 칼벼랑이 막아섰다고 해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그 결이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절감하게 되고 조국과 집단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정, 필요하면 생명을 서슴없이 내대는 무한한 헌신성과 완강한 투지, 무비의 희생성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게 되는것이다.

피땀과 청춘이 불타라 심장이 뛰고 열정이 불타라 혁명의 열정을 불태우며, 당과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고락을 같이하고저 찾아 달려온 청년들격대원, 국도의 개척시기와 대를 이어 가며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

의 부름을 받들고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나날들에 혁명적이며 광만적인 투쟁과 생활속에 금주고도 살수 없는 고상한 인격을 소유한 시대의 멋쟁이, 조국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백두정충들은 자기들 스스로 파과까지 정해놓은 선군청년대학에서 수령결사옹위, 김정일애국주의, 자력갱생, 결사관철, 혁명적투쟁, 집단주의, 혁명적합작주의를 실천투쟁속에서 배우며 가슴에 깊이 새기고있다. 그들은 퇴색적인 부르주아생활양식과 날라리풍을 철저히 배격하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해도 우리 식으로,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도덕혁명적이며 민족적정서가 풍부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곤 한다. 일생에 한탄밖에 없는 절충식도 돌격대복을 입고 동지들의 축복속에 진행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하고도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체화해나가는 이런 혁명적이며 광만적인 투쟁과 생활속에 고상한 인격수양이 이루어지는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가 완공되는 날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뜻깊은 결혼식을 할것을 약속하였다.

출발하다.

백두산에서 흐르는 청춘시절을 자부한 들격대원들의 헌생의 선택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만드는 길에서 무의한 청년들격대원들의 사랑의 선택도.

이것이 바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삶의 과피를 새운 우리 시대 청춘들의 고결한 인생관이다.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초석

◇ 얼마전 청년중앙회관과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로동당의 딸-강선명의 《처녀어머니》장정화동무와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상봉모임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모두가 그의 정신세계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격동된 심정을 터쳤다.

《처녀어머니》라는 말은 그 어느 나라 사건에도 올라지 않았다. 장정화동무의 소행은 온 나라가 화끈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장정화동무의 미덕은 단 순히 그 어떤 생애나 총동에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에 대한 도덕적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귀감이다.》

인간의 아름다운 결모습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도덕적품도에 있다. 자본주의가 영원히 흉내낼수도 가질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상의적으로 견결할뿐 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 더없이 건전하고 고상한데 있는것이다.

◇ 도덕은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초석이며 사회주의의 생기와 활력의 근보탕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를 지고 빛내여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생활화, 인생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결코 총대로만 지켜지는것이 아니라,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수호와 발전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혁명적도덕기풍과 동지들 사이의 상호도덕적의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은 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키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정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생산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도덕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대인할수 없다. 외적인 강요나 통제가 아니라 혁명적의리와 량심에 기초

한 자각적인 도덕기풍이 지배할 때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도덕을 확립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결국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끝날 외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배신자로 전락되게 되었고 이로써 정취한 혁명의 전위들이 원수들에게 통탄당하는 쓰러린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도덕은 혁명성과 모순되지 않을뿐 아니라 혁명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동지적으로, 혈연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해나가고있는 현실은 도덕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온 우리 당의 명도의 혁명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기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도덕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혁명적도덕이고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가 끝없이 이기고 위해지는 인민적인 도덕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 헌신적인 도덕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덕기풍을 세우는 사업이 사회주의수호와 이당이라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혁명적인 도덕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내부에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색적인 생활양식을 투포시켜 사람들을 정신적봉기자, 도덕적타락분자로 만들려고 발악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사회교양, 학교교양, 가정교양을 강화하여 청소년기부터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

언제인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만났던 한 들격대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의 청춘시절이 백두산에서 흐른것을 자부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잊지 못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을 빛내여나가는 그의 리상과 포부가 아름답기때문이다.

얼마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황해북도

려단의 혁신자들격대원들을 휘젓는 과정에 우리는 돌격대원 신철준, 한해성동무들을 만나게 되었다.

집단의 사랑과 존경속에 서 혁신자로, 위훈자로 이름떨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웠다.

《처녀어머니! 부모님들은 청년사건을 함께 보내곤 하였습니다. 온기를 뽐내세라 걱정을 못 놓는 부모들의 심정이랄까... 그러나 전 여기

그들은 서로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가 완공되는 날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뜻깊은 결혼식을 할것을 약속하였다.

출발하다.

백두산에서 흐르는 청춘시절을 자부한 들격대원들의 헌생의 선택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만드는 길에서 무의한 청년들격대원들의 사랑의 선택도.

이것이 바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삶의 과피를 새운 우리 시대 청춘들의 고결한 인생관이다.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해서 자식들도 저절로 영웅이 되는것이 아니다. 자식은 결단 날지 속을 날지 않는다는 말도 그래서 이었다.

하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바란다. 자식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큰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하지만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 큰 공헌을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공화국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수송길동무에게는 세명의 골짜기 아들들이 있다. 우리는 영웅아버지와 세 아들의 훌륭한 모습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영웅 아버지와 세 아들

◇ 모란봉구역 민흥동 25인민반 수송길동무의 가정

위대하신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전세대는 후대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재부도 물려주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후대들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귀한 정신도덕적재부를 물려주는것이 더 중요함이다.》

수송길동무는 40여년간 군사복무의 길을 걸은 로병이다. 그는 부에서 혁명 하나밖에 모르는 군사지휘관이었고 집에 들어와서는 세 아들의 엄격한 스승, 훌륭한 교양자였다. 그는 자식들에 대한 교양에서 무엇보다도 도덕교양에 첫째가는 힘을 넣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도 고결한 도덕의리를 지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것이 그의 인생철학이었다.

지금도 그의 세 아들이 두고두고 추억하는 이야기가 있다. 세 아들이 청년시절이다보니 서로 다투는 때가 많았다. 양보심이 많은 형은 형 동생들을 리해하느라고 하되지만 그들은 끝내 형을 동생과 승복이 없는 셋째는 종종 다투었다. 그날도 어머니가 사은 그림책을 먼저 보겠다고 다름없었다. 그들은 끝내 그림책을 찢어놓고야말았다. 찢어진 그림책을 놓고 서로 벌을 주고 싶다고 우겨대고있을 때 주송길

동무가 집에 들어갔다. 안면도부터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그날 세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오늘은 형제들끼리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그림책을 찢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제 욕심만 차려서 서로를 코르바. 후에 어떤 사람이 되겠나. 제 리상을 위해서는 한치 양보도 할 줄 모르는 속물이 되고 나가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까지 속이는 사회의 추물이 될게다. 아예사람은 웃사람을 존경하고 늘 지르다 먼저 남을 리해할 줄 알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도덕품성이 없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다.

그후 그는 자식들의 도덕교양에 더욱 큰 힘을 넣었다. 그래서 그런지 세 아들에게는 동무들이 많았다. 학교동무의 아버지가 출장을 가서 그 집에 남자손이 모자란다는것을 알고는 세 형제가 밤새워 구멍뚫을 찍어주었다. 어느해 추운 겨울 날 첫째는 맨손인 동무에게 장갑을 벗어주고 자기는 손이 빨갛게 얼어서 들어왔고 남달리 머리가 뛰어난 둘째는 밤길도둑 동무들의 학습방조를 성실하게 해주었으며 막내아들도 별식이 생기면 항상 동무들과 나누어먹곤 하였다.

그러하여 주송길동무의 세 아들들은 공부도 잘하고 도덕품성이 밝아 온 마을을 기쁘게 하였다.

그렇게 자라난 자식들이 조국보위소로 떠날 때마다 주송길동무는 영웅이 되기 전에 참관인이 되라고 당부하곤 하였다.

얼마전 그의 가정에서 경사가였다.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세 아들이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장을 찍었다는 꿈같은 소식이 내리온것이다. 주송길동무의 집에서는 밤이 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40여년의 군사복무기간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고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공화국영웅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반이안은 은정에 보답할 줄 모른다던 그 어찌 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겠다. 리를 저버린 사람이 아니다. 난 너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만드는 참관인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주송길동무는 다 자란 자식들을 놓고 도덕교양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그는 말했다.

자식이 잘되길 바란다면 무엇 보다먼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관인으로 키워야 하며 그것은 가정교양에 크게 달려있다고. 리 신 향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재일동포들 경모의 정 표시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탈레브 리파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관광기구대표단, 신길용 대표

파일군의 첫물복숭아 평양 도착, 수도시민들에게 공급

올해 첫물복숭아 실은 파일수 총대가 10일 파일군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시민들에게 신선한 파일을 더 많이 먹이시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간곡한 유언이다.

당장전 일출녘을 맞으며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타미는 수평의 유순관철전, 당정책위원의 불철주속에 파일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수도시민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파일나무를 정성껏 가꾸어왔다.

파일나무들에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주고 나무들의 생육상태와 기후조건에 맞게 관수시설들의 운영을 짜고들면서 비배편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다.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의 잘 익은 복숭아를 자동차들에 가득 실어 평양으로 보내보았다.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이 어린 파일들을 싣고 수백리길을 달려온 파일수송대를 수도시민들이 손저어 받기게 맞이하였다.

그들은 맛있는 파일을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시며 수송대책까지 세워주시며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가슴

방직공장 로동자 합숙, 육류야영원,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 등과 시내의 상업봉사장으로 향하였다.



월남인민회의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7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후임 육용 선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월남인민회의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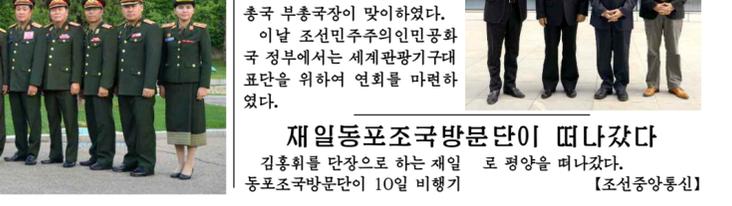


라오스인민혁명중앙위원회 비서인 생누안 싸이냐랏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방관복 조선인민군 특근중장과 폰캄 인타부

몽골 대통령특사일행 귀국

몽골 대통령특사인 담빈 칸호 야그 외무성 국무부서와 일행이 10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판재부인 일군들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세계관광기구대표단 도착



탈레브 리파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관광기구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위용철 국가관광부총국장이 맞이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세계관광기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김홍희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